

HRD 3월의 이슈

-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정책, 우리가 혁신한다!
-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산업부, 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HRD 동향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완화 중위
180% 이하 → 250% 이하



폴리텍대, 다문화 청년
맞춤형 기술교육 실시
200명(올해)



2024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95명



1월 고용시장, 역대 최고
고용률 달성
61.0%

Vol.96
March 2024 **03**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hrd 동향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정책으로 한 발짝 더!

지난 2월, 고용정책 실·국장, 전국 48개 지방관서 고용센터 소장 등이 모여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를 열었다. 이는 노동시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실국의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현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 즉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맞춤형 전략을 실천해갈 것이다.



COVER STORY

인공지능(AI)으로 새롭게
변화해갈 고용시장에 맞춤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VOL. 96
MARCH, 2024

03



책의 제목을 클릭하거나, 책의 끝단을 클릭한 채로 넘겨주세요.

HRD 스페셜

- 04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정책, 우리가 혁신한다!
- 05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산업부, 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 06 "청년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 정책구현"

HRD 현장

- 07 다문화 청년, 맞춤형 기술교육 받는다!
- 0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효과성’ 연구 결과 발표
- 08 한국산업인력공단 ‘디지털 분야 미래지식포럼’ 개최
- 09 “한 번에 쉽고 편리한 나만의 고용서비스를 받는다” 「고용24」가 시작됩니다!
- 10 직업능력 개발에 공로가 큰 숨은 유공자를 찾습니다
- 10 인재를 모으는 방법? 「공정채용 컨설팅」이 알려드립니다!
- 11 ‘걸어온 길 달라도, 기술로 새 출발’ 폴리텍대 졸업생
- 12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선언
- 13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훈련 도전이 시작됩니다!
- 15 청년친화 직장문화! 청년이 제안한다!
- 15 모든 청년구직자의 빠른 취업과 적응을 일학습병행으로 지원합니다.
- 16 외국인 근로자 16.5만 도입을 위한 ‘미래지식포럼 및 워크숍’ 개최
- 16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직업훈련 혁신을 지원합니다
- 17 직업능력개발, ‘꿈드림공작소’로 시작하세요

고용 BRIEF

- 18 ’24.1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 19 이달의 키워드 & HRD 생생정보

연구 INSIDE

- 20 글로벌 인재포럼
- 20 출형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지표 연구
- 2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21
2023년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 사업 연구

기관 LINK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사업 insight

- 23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무엇인가요?

통 권 제 96 호
발행일 2024년 3월 19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관리국
052-714-8325
구독신청 및 문의 1stlee2@hrdkorea.or.kr

"청년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 정책구현"



2024년 3월 5일, 관계부처합동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청년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 정책구현"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

정부는 3.5(화),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하였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460여 명이 참석, 현장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다.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① 청년생활 걱정해소, ② 청년정책 기반 확대, ③ 체계적인 자산형성, ④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① 청년생활 걱정해소

(1)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한다.

대학교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패스(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 환급),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 문화비 지원)를 통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 한다. 타지역 거주 청년들이 늘어난 만큼, 생활인구기반 혜택 제공을 추진, 인구유입 활성화까지 유도할 예정이다.

(2) 청년 몸과 마음건강, 안전 관리를 지원한다.

정신건강검진(20~34세, 2년주기로 단축) 결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 치료를 위해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신체건강 관리 지원을 위하여,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헬스 등 신체건강 바꾸쳐 이용도 보다 확대한다.

(3)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공공분양 6.1만호, 공공임대 5.1만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대출, 기숙사비 카드 결제 확대로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4)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정부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 육아 청년 지원을 확대한다.

② 청년정책 기반 확대

(1) 청년의 국정운영 참여채널을 확대한다.

청년 참여 중앙부처 정부위원회 221개로 확대에 이어, 지자체 운영 위원회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앙부처 행정인턴의 경우, 일 경험은 물론, 정책과제에도 참여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2)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을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부처, 지역에 따라 청년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온라인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③ 체계적인 자산형성

(1)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시 개인 소득(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요건충족이 필요한데, 청년근로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이하로 완화를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하여 중도해지(3년 이상 가입)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군장병도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입 등 제대 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2)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청년의 체계적 자산관리를 위하여 청년 개인 금융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 금융 상품 활용 교육 등 자산형성 교육을 지원한다.

만기자에게 주택과 창업 지원을 연계하여,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꿈꾸는 희망자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과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④ 빈틈없는 취업 지원

①진로·역량개발 → ②취업 → ③재직 청년들이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1) [진로·역량] 대학 재학시절 미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학년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주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50개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명에게 제공한다. 기업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를 10만개 이상으로 확대 및 취업까지의 연계도 강화한다.

(2) [취업]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청년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K-Move 스킴은 청년 3,100명에게 여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KOICA 청년 이니셔티브(27년까지 누적 3만명),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도 확대한다. 한국-EU 청년의 교류 확대를 위해 EU운영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교류·파견 종료후에도 채용정보 제공 등 해외 진출을 지속 지원한다. 웹기반 창작서비스, 웨딩·뷰티 등 청년의 서비스 발전방안·성장기반 마련,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3) [재직] ‘공정’, ‘워라밸’의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개인정보 침해, 채용 비용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공공민간 채용포털의 위법 공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연 근무 확산을 위해 기업 컨설팅, 근태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문화 청년, 맞춤형 기술교육 받는다!



2024년 2월 26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다문화 청년, 맞춤형 기술교육 받는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폴리텍대 10개 캠퍼스에서 200명 기술교육, 3월부터 모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다문화가족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 10개 캠퍼스에 ‘다문화 청년 특화교육’을 신설하고, 올해 200명을 대상으로 취업훈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문화 청년 특화교육’은 다문화가족 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 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맞춤형교육 과정이며, 6개월간 집중적인 기술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①국내출생 자녀(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사람) ②중도입국 자녀(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사람) 또는 ③결혼이민자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18세~34세 청년이다.

교육은 4월 1일 시작해 6개월간 진행된다. 산업안전 교육을 포함한 핵심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견학,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산업현장 체험 교육도 이루어진다. 또한 컴퓨터 활용, 기술 분야 한국어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그룹을 편성해 학생들의 개인별 적성, 선호 직무 등을 고려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밀착 지원하고,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구인·구직을 연계할 예정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최근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다문화가족 청년들이 잠재 역량을 발휘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다문화 청년 특화교육 모집에 관해서는 캠퍼스별 담당자(참고1)에게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효과성' 연구 결과 발표

2024년 2월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효과성’ 연구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무·성과가 임금에 반영되는 정도 및 유연근무제 시행 정도 통계학적 유의미한 결과 도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효과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이 ①직무·성과가 임금에 반영되는 정도 및 ②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정도가 통계학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2023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컨설팅’ 참여기업 166개, 미참여 기업 174개 등 총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은 △ 근로자 보상 △ 직무만족도 △ 근무형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실 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은 “연구 결과를 통해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이 기업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디지털 분야 미래지식포럼' 개최



2024년 2월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디지털 분야 미래지식포럼’ 개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 혁신을 위한 디지털·정보화 관련 내·외부 전문가, 공단 ombudsman 등 참석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1일 연세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서울 중구)에서 디지털·정보화 분야 내·외부 전문가, 공단 ombudsman 등을 초청하여 ‘데이터 기반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 혁신’을 위한 미래지식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공단이 실시한 디지털 전환 성과 등을 공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디지털 전환 기조에 맞춰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공고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의 좌장인 김현준 교수는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민 개인의 평생능력개발과 맞닿아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민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인적 자원개발(HR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작년 개인의 직무능력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직무능력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직무능력은행’을 오픈하였으며, 올해는 ‘모바일국가 자격증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에 자격정보를 담아 활용하는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3월부터 개시한다.

공단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는 2023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에 선정되었다. 종이 형태의 자격증명 방식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국가자격증 취득 정보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뤄낸 혁신행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은 내·외부 전문가 및 고객과 함께 디지털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혁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지식 포럼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디지털 기술로 국민이 더 쉽고 더 가까이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번에 쉽고 편리한 나만의 고용서비스를 받는다" '고용24'가 시작됩니다!



2024년 3월 1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한 번에 쉽고 편리한 나만의 고용서비스를 받는다” 「고용24」가 시작됩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고용정보원 찾아 「고용24」 시연회 및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간담회 가져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 「고용24」를 통해 모든 국민이 컴퓨터(PC)는 물론 모바일을 통해서도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11.(월) 15:30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 이하 ‘고용정보원’)을 찾아 고용정보원 임·직원, 고용서비스 전문가와 함께 「고용24」를 시연하고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간담회」를 했다

「고용24」는 그간 워크넷(취업지원),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 장려금), 직업훈련포털(내일배움카드), 취업이름(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분절적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신고·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 디지털 고용플랫폼이다.

앞으로는 구직자, 구인기업 모두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24」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구인 구직(24종), 실업급여(14종), 직업훈련(11종) 등 100여 종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 구직자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고용24」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고용24」에 탑재된 인공지능 기반 잡케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학생에게 전공·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설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장관은 「고용24」 시연 이후, 최근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한 고용정보원의 역할과 디지털·데이터 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용정보원은 올해 하반기 「고용24」 정식 오픈 전까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고용24」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디지털 수요를 반영해 구인, 구직 등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세계 일류 서비스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정보원이 보유한 각종 고용행정데이터를 활용해 ①우리 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분석, ②각종 고용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③디지털 서비스 개선 등 정책 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24」 구축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고용정보원의 강점인 디지털, 데이터, 연구기능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서 기존의 일자리정책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체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정보원 김영중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개인별·기업별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도입을 확대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직업능력 개발에 공로가 큰 숨은 유공자를 찾습니다



2024년 3월 1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직업능력 개발에 공로가 큰 숨은 유공자를 찾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11.(목)까지 「2024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후보자 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11일(월)「2024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4월 11일(목)까지 포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은 전 국민의 평생직업 능력개발 및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1997년도부터 시작하여 그간 2,721명에 대해 포상했으며, 올해는 6개 분야별로 총 95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을 희망하거나, 추천을 원하는 자는 분야별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직업능력개발과),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지사), 한국폴리텍대학(인사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인재개발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및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추천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공개검증과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직업능력의 달인 9월에 개최되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월3일)」 및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9월9일)」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최근 기술 발전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내용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서 개인 및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함으로써 직업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포상 추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재를 모으는 방법? '공정채용 컨설팅'이 알려드립니다!



2 024년 2월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인재를 모으는 방법? 「공정채용 컨설팅」이 알려드립니다!**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정하고 효과적인 채용을 지원하는 ‘공정채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중소·중견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채용지원을 위해 ‘2024년 공정채용 컨설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컨설팅은 기업이 직무에 적합한 능력있는 인재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이다. 채용직무 분석, 채용공고 작성, 선발기준·면접질문 마련, 고용브랜딩 구축, 온보딩 설계 등 채용단계별로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채용공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냈더니 뽑고 싶은 지원자가 늘었다.”, “이전에는 ‘채용 전 기대했던 일과 실제 업무가 다르다’며 이직하는 신입사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줄었다.”라며 만족도가 높고, 작년 151개 기업 지원 시 상반기 중 모집이 마감될 정도로 기업의 호응도 좋아, 올해는

지원대상을 200개로 확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누리집(www.ncs.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외에도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제외(3년간), 취업포털 활용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언론 홍보와 함께 연말 장관상과 상금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채용하고 싶은 기업, 구인에 어려움을 겪거나 적합한 인재 채용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 고용브랜딩 등 한 단계 더 발전된 채용을 진행하고 싶은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걸어온 길 달라도, 기술로 새 출발' 폴리텍대 졸업생



2024년 2월 7일, 한국폴리텍대학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걸어온 길 달라도, 기술로 새 출발’ 폴리텍대 졸업생**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폴리텍대, 2023학년도 졸업생 1만여 명 배출 - 정보기술(IT) 개발자 된 간호사, 용접사로 변신한 어린이집 교사, 32살에 로봇 엔지니어로 첫 직장

간호학 전공자인 정수영(29·남)씨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뒤 취업처까지 찾았지만, 정보기술(IT) 개발자로 진로 전환을 결심했다. 학부 연구생으로 마약성 진통제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하면서 정보기술(IT) 분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정씨는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해 10개월간 기업 맞춤형 커리큘럼을 이수하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을 익혔다. 졸업 프로젝트로 주요 질환의 발병을 예측하고, 보험 가입(심사)과 보험금청구(심사)를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그는 “학부생 때 병원에서 실습하며 구상했던 걸 기술로 구현하면서 실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다”고 했다. 정씨를 포함해 같은 과 졸업생 17명이 하나금융티아이에 개발자로 동반 입사했다.

폴리텍대는 1만여 명의 학생이 전국 39개 캠퍼스에서 졸업을 맞는다고 2월 7일 밝혔다. 폴리텍대는 신산업과 뿌리산업을 아우르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현장성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저마다의 배경은 달라도 능력과 적성을 살려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그만큼 졸업생 중에는 정씨처럼 이색 사연을 가진 이들도 많다.

7년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영진(29·여)씨는 반도체 퀀트용접 기술자로 새 삶을 시작한다. 이씨는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폐업과 권고사직이 반복되자, ‘기술 하나라도 있으면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난해 포항캠퍼스 융합산업설비과 전문기술과정에 입학했다. 1년 과정을 다니는 동안 9개의 자격증을 따냈고, 반도체 소재 기업 원익큐엔씨

이영진(29·여)



반도체 퀀트용접 기술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서 반도체 퀀트용접 기술자로 새 출발하게 된 폴리텍대 포항캠퍼스 융합산업설비과 졸업생 이영진씨

채용 연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퀀트웨어 생산에 필요한 용접 기술도 익혔다. 다음 달 원익큐엔씨 입사가 확정된 이씨는 “기술인의 길에 남녀의 차이는 없고, 실력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더 많은 여성이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로봇 엔지니어 손명준(32·남)씨는 32살에 첫 직장을 가졌다.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던 손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민간기관의 교육도 받았다. 전공 분야 취업이 어려워 공기업 분야로도 눈을 돌렸지만, 졸업 후 공백기는 4년이나 이어졌다. 손씨는 2021년 로봇캠퍼스 로봇IT과 2년제 학위과정에 입학해 협동로봇, 로봇네트워킹, 로봇운영체제(ROS), 자율이동로봇(AMR) 프로그래밍 기술 등을 익혔다. 졸업 전 취업에도 성공해 고정밀 의료 로봇과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는 유에이로보틱스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기술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취업 소감을 밝혔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축하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 주역으로서 힘찬 새 출발을 하게 된 졸업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더 넓게 펼쳐질 세상을 밑거름 삼아 자신의 분야에서 빛나는 기술 챔피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올해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폴리텍대의 취업률은 80.6%, 유지취업률은 92.7%를 기록했다. 폴리텍대는 3월 중순까지 2년제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명준(32·남)



로봇 엔지니어
32살에 로봇 엔지니어로 취업에 성공한 폴리텍대 로봇캠퍼스 로봇IT과 재학 중인 손명준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선언



2024년 2월 2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선언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월 21일(수) 제4기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에 참석하여 20개 위원회와 함께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비전을 선언했다.

2015년 출범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산업별로 사업 주단체, 기업, 협회, 근로자단체의 관계자가 모여 산업현장의 다양한 이슈와 인력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산업별 역량체계(SQF)를 개발·개선하는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제4기 출범식에서는 20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합동으로 향후 3년간(‘24~’26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담은 비전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의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훈련기준·과정 및 자격제도에 반영토록 하고, 직무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도입·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업종의 특성 및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유연근무가 도입·확산되도록 홍보·지원하여 일·육아 병행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자율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정보보호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도 발족했다.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사이버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직무 중심의 인력실태를 조사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범식에서 이성희 차관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4기 사업 시작을 축하하면서, “제4기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인적자원 개발 분야 거버넌스로서 산업현장과 국가정책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산업별 인적 자원개발위원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찾았다
맞춤인재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훈련 도전이 시작됩니다!



2024년 3월 4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훈련 도전이 시작됩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일반고 특화훈련 548개 훈련과정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훈련 운영계획을 밝혔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사업으로,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35개 훈련기관의 548개 훈련과정이 선정되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계설계, 사물인터넷(IoT), 미용, 음식서비스 등 33개 직종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생들은 직종별 전공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인권·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직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이력서 작성법 강의, 모의 면접, 1:1 취업 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인 취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1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의 연계로 진로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첨단·디지털 직종에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적용한 신기술과정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9년간 약 6만 명의 일반고 학생들에게 훈련을 지원했다. 작년에는 총 5,544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취업률은 70.5%를 달성했다. 훈련생들은 재학 중에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한 뒤 관련 분야 기업에 취업하는 등 1년간의 훈련을 발판 삼아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일반고 3학년은 누구나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훈련 참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일반고 특화훈련을 통해 학생들을 기업이 원하는 실무인재로 양성하고 그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학생들이 훈련을 통해 한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일반고 특화훈련이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훈련을 받나요?

바리스타 제과제빵
제과·제빵 기능사,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음식서비스
한식·중식·양식
조리 기능사 취득

실내건축
실내건축 기능사,
도배 기능사 등 취득

항공기 정비
항공기체정비원,
항공기체 정비원 취득

이외에도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34개 직종)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3월

10개월

12월

직종별 전공교과
실무능력 습득·자격 취득 교육
선택한 전공을
이론부터 실습까지 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노동인권교육, 취업지원 및
직업기초 프로그램 등
노동시장 진입 지원

졸직 후기

자동차 차체 정비원 양성 과정을
듣고 대구에 있는 BMW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영하
G 훈련기관

전날 내선공사 실무 야성 과정을 들었고
지금은 진해 육사령부에서
재직중입니다!

이영현
H 훈련기관

친한경자동차정비실무 과정을
수료 후, 현대블루핸즈 취직했었고
지금은 **글로벌모터스**에서
근무 중이에요!

김이우
D 훈련기관

현재, 제과·제빵기능사와
방음 **바리스타 2급** 취득 및 실무양성과정을
S 훈련기관 듣고 있고 졸 해 수료 예정이에요~

2024 달라지는 꿀혜택

훈련장려금 인상
기존 월 116,000원
월 200,000원
(80% 이상 출석시)

신기술 과정 신설
취업 시 활용하는
포트폴리오 제작

맞춤형 진로 상담
고교생 맞춤형
전문상담제공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HRD TRENDS & ISSUES MAGAZINE · 2024

청년친화 직장문화! 청년이 제안한다!

2024년 2월 28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청년친화 직장문화! 청년이 제안한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2024년 ‘청년 4다리 정책과제’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8일(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4년 2030 자문단 첫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의에는 이정식 장관이 참석해 올해 2030 자문단 활동 계획을 청취하고 자문단원들을 격려했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한 해 동안 수행할 새로운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올해는 조직문화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고용, 노동, 산업안전, 조직문화 총 4개 분과위원회로 재편했다.

고용분과위원회는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 보완사항 발굴’, 노동분과위원회는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 수렴 및 제언’, 산업안전분과위원회는 ‘산업안전 대·중소 상생을 위한 정책 제언’, 직장문화분과위원회는 ‘청년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의견 제시’를 과제로 선정했다.

신설된 직장문화분과는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고, 일하기 좋고, 안전한직장 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분과는 지역청년에게 기회가 확대되도록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노동분과는 지난해에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 노동시장 모습에 대해 주목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분과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중소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 청년들이 제안하는 청렴도 향상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청년보좌역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2030 자문단의 단장은 임소형 기존 청년보좌역이, 부단장은 공병훈 신임 청년보좌역이 맡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2030 자문단원들이 직접 고민하고 수립한 청년친화 직장문화 등 ‘청년 4다리 정책과제’가 청년들의 주도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든 청년구직자의 빠른 취업과 적응을 일학습병행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모든 청년구직자의 빠른 취업과 적응을 일학습병행으로 지원합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학습병행의 참여 대상을 재학생과 재직자에 이어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 시행하는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 실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월 27일(화)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전문기업인 (주)평화이즈(서울시 서초구 소재)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구직자의 빠른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을 실시한다고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학습병행제는 정규 교육과정(고교, 대학) 중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재학생과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재직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아직 취업하지 못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는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구직자용일학습병행(구직자취업연계형 일학습병행)**’을 신설하여 청년 구직자에게도 사전이론교육을 통한 적성에 맞는 직업탐색과 취업에 필수적인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에 취업한 뒤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통해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성희 차관은 “일학습병행은 그동안 청년들에게 기업이 원하는 직무역량을 갖추어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크게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부터는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하여 일반 청년 구직자뿐 아니라 취업 취약 청년도 원하는

일자리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기업은 필요한 수준의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 목소리(일학습병행 우수사례)

- ☑ 의료용 정보시스템 설계 분야는 전공자를 찾기가 어려운데, 일학습병행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맞춤형으로 양성하여 매출액 상승 및 대외적으로 기업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남 ((주)평화이즈 HRD 담당자 조OO)
- ☑ 직업계고 재학생 때 시작한 일학습병행 훈련(금형제작)으로 졸업 후 기업에서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 (S기업 학습근로자 김OO 프로)
- ☑ 일학습병행 훈련을 통해 생산 현장 근로자가 전문성을 갖게 되어 공정의 불량률은 크게 낮아졌으며, 근로자는 자격취득 등 자기 계발로 만족도가 높음 (D기업 정OO 본부장)

14

15

외국인 근로자 16.5만 도입을 위한 '미래지식포럼 및 워크숍' 개최



2024년 2월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외국인 근로자 16.5만 도입을 위한 '미래지식포럼 및 워크숍' 개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 담당 16개국 국내·외 기관장 및 관계자 참석 -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역대 최대인 16.5만명 도입을 위한 결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월 5일부터 7일까지 나인트리(서울 용산구)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16개국) 기관장 및 EPS센터 주재원 등을 초청하여 ‘EPS센터-송출기관 미래지식포럼·워크숍’을 개최했다.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쿼터는 역대 최대인 16만 5천명으로, 이번 행사는 원활한 사업 운영과 공고한 국외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4년 시작되어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고용허가제 사업은 국내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E-9)를 지원하여, 국내 빈 일자리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100,148명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 누적

961,347명의 근로자가 입국했다. 공단은 △ 한국에 교육 콘텐츠 개발 △ 선발 체계 고도화 △ 실시간 입국 정보 확인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지식포럼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적기 선발, 신속 도입, 권익 보호 및 핵심 전략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16개 국가를 잇는 고용허가제 국내·외 관계자가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외국인 근로자 역대 최대 도입 규모 16.5만명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EPS 미래지식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고용허가제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직업훈련 혁신을 지원합니다



2024년 2월 16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올해부터 고교 재학생도 인근 대학에서 맞춤형 고용서비스 받는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2월 16일(금), 훈련기관이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높은 품질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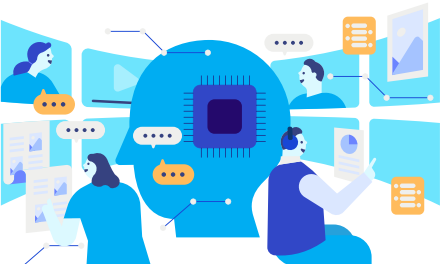
이를 위해 100여 명의 직업훈련 전문가,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등으로 컨설팅 전담팀을 꾸려 1:1 컨설팅을 제공한다.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은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과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으로 구성된다.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은 훈련기관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새로이 진입한 훈련기관에는 훈련생 모집 방법, 훈련과정 설계,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훈련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운영 실적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올해에는 신규기관 50개소(2월 모집)와 경력기관 50개소(6월 모집)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미래지향적 훈련방법 도입을 지원한다. 훈련기관에 프로젝트 학습(PBL) 등 새로운 교수법이나 생성형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수업 지원 도구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기관의 훈련 직종, 훈련시설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훈련방식을 추천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피드백까지 제공한다. 해당 컨설팅은 상시 모집하고 있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 훈련기관이라면 언제든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의 품질 향상을 위해 훈련기관과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고자 한다”라며,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을 통해 직업훈련의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고, 국민에게 선진화된 직업훈련을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직업능력개발, '꿈드림공작소'로 시작하세요



2024년 2월 19일, 한국폴리텍대학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직업능력개발, '꿈드림공작소'로 시작하세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폴리텍대 시설·장비 개방해 기술교육과 체험학습 제공, 국민 누구나 무료 이용
- 지난해 3만7615명 이용, 347건 시제품 설계·제작 지원
- 이차전지 제조 공정, 특수용접 등 확장현실(XR)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 -
- 국방전직교육, 노사발전재단 등과 협력해 국민 참여 활성화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는 지난해 7월, 은퇴 후 인생 다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에게 ‘전기설비제어’ 단기 기술교육을 제공했다. 교육생 20명은 전기회로 구성과 배선, 배관(전선관 설치) 작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혔다. 이들 중 16명이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해, 13명이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이 국민의 공공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꿈드림공작소’ 사업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가 보유한 시설·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해 단기 기술교육과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폴리텍대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항공기 원리를 이해하고 기체와 엔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우리는 어떻게 날 수 있을까’ ▲ 레이저커팅기를 활용한 ‘엘이디(LED) 조명 만들기’ ▲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공기정청기 제작’ 등 처음 기술을 접하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췄다.

폴리텍대에 따르면 지난해 3만7,615명의 국민이 꿈드림공작소 서비스를 이용했다. 예비 창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설계·제작을 지원한 사례도 347건이나 된다.

자동차 솔루션 기업에서 일하던 권중훈(48·남) 씨는 지난해 퇴사 후 창업 출사표를 던졌다. 컴퓨터 수치제어(CNC) 공작기계 자동 세팅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권 씨는 폴리텍대 아산캠퍼스로부터 변위 센서 장치 시제품 제작을 지원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했다. 권 씨는 창업에 성공해 지난해 12월 특허를 출원하고 6개 기업과 계약도 체결했다.

폴리텍대는 지난해 캠퍼스별로 3개씩 도입한 확장현실(XR) 장비를 활용해 올해부터 신기술을 적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교육생들은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방법을 익힐 수 있다. 또한, △이차전지 제조 공정(조립, 화성*) △특수용접 △지게차 운전 등 전문기술 분야도 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반복 훈련해 볼 수 있다.

더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한다.국방 전직교육원과 협력해 육군·공군 취업맞춤특기병이 기술 직무를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한다. 올해 첫 일정으로 다음 달 28일 성남캠퍼스에서 청년 병사 60명을 대상 **▲반도체 공정 ▲자동차 장치 제어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제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장년도 꿈드림공작소를 통해 직업훈련 직종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반기별 체험 주간을 운영해 나간다.

꿈드림공작소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교육과 체험학습에 드는 비용은 전액 무료다. 전국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조회하고 참가 신청하려면 온라인 시스템(dream.kopo.ac.kr)을 이용하면 된다. 신규 프로그램 개설 요청이나 시제품 제작 지원 신청도 이곳에서 할 수 있다.



폴리텍대 항공캠퍼스 ‘전기설비제어’ 교육에 참가한 중장년들이 전기회로 구성 실습을 하고 있다 .



확장현실 (XR) 기술을 활용해 이차전지 화성공정 총 ·방전 단계에서 과전류로 발생한 화재 사고 조치 방법을 학습하는 모습

2024년 1월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2024. 2. 16.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2024년 1월 고용동향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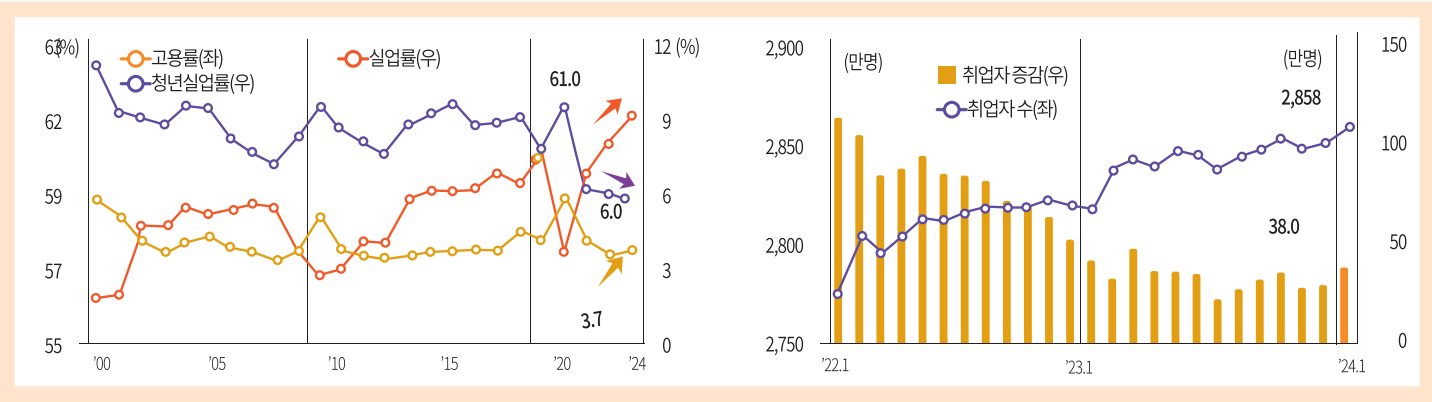
- ☑ 고용률(61.0%)·경제활동참가율(63.3%)은 1월 역대 최고, 실업률(3.7%), 확장실업률(10.0%)은 1월 역대 최저

○ 15세 이상 고용률(61.0%, +0.7%p)·15~64세 고용률(68.7%, +0.9%p)은 동반 상승하며 1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
- 경제활동참가율은 35개월 연속 상승(+0.7%p)하며 1월 기준 역대 최고

○ 실업자수는 +4.8만명 증가, 실업률(3.7%)은 상승 지속(+0.1%p)

○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8만명 증가(35개월 연속)

⇒ 15세 이상 고용률□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원계열, 매년 12월) + 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원계열, 계절조정, 전년비)



- ☑ (산업별) 제조업은 수출개선 등으로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전문과학·운수창고 중심 증가 + 건설업은 증가폭 확대

○ (제조) 수출개선 등에 힘입어 취업자수 증가세 지속

○ (서비스) 돌봄수요 증가 지속, 직접일자리 조기 집행 등으로 보건복지업 증가폭 확대, 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운수창고업 증가 지속

- 방한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등으로 숙박음식업은 감소 전환,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부동산업 감소세 지속

○ (건설) 예년대비 따뜻한 날씨 등으로 증가폭 확대
- ☑ (지위·직업)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 + 청년층 고용률 지속 증가

○ (지위)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하며, 상용직 비중은 1월 기준 역대 최고

- 고용원외 자영업자는 증가 지속, 고용원내 자영업자는 감소 지속

○ (직업) 전문가(+21.6만명), 사무직(+19.9만명), 서비스(+8.8만명) 등 증가, 관리자(△2.1만명), 판매종사자(△13.4만명), 기능직(△1.1만명) 등 감소
- ☑ (연령) 청년층 포함 전 연령계층 고용률 상승 + 인구증가로 고령층 취업자수 증가

○ 고용률은 전 연령대 상승, 30대 취업자수는 인구감소에도 증가(25개월 연속)

- (고령층)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세 지속

- (청년층) 인구감소(△21.8만명) 등으로 취업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청년 고용률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양호한 흐름

☑ (평가·전망)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 지속

○ 2년간의 기저효과('22.1월, 113.5만명, '23.1월 41.1만명)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 38만명 증가하며 전년에 이어 견조한 흐름 지속

- 취업자수는 서비스·건설·제조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세 유지, 고용률은 청년층 포함 전 연령대에서 상승하는 등 고용 호조세 지속

○ 돌봄수요 확대 지속 등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 취업자수 증가 지속 및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 지속 전망

- 기저효과 등으로 숙박음식업 고용둔화 지속 가능성, 건설수주 부진 등에 따른 건설업 고용 둔화 예상 등 고용 리스크요인도 상존

⇒ 고용동향 모니터링 지속,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 노력

- ① 「일자리 전담반(TF)」 중심으로 고용동향 모니터링 지속
- '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고용현안 논의
- ② 「'24년 경제정책방향」(1.4) 정책과제 이행, 역동경제 환경 조성, 수출·투자 활성화를 통한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이달의 키워드 & HRD 생생정보

이달의 키워드(워드클라우드)



HRD동향 3월호 워드클라우드

2024년 HRD동향 3월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 1위_청년

2위_맞춤형

3위_일자리

'24년 3월호에서는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4다리 정책과제를 발표하였고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 확대 및 청년 구직자 일학습병행 신설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HRD 생생정보

자동차 정비, 혁신을 담다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 명장 최용식 대표 인터뷰

“포니부터 EV6까지 한 평생의 작업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 명장 최용식 대표

은가락은 글고, 손길 같은 까맣다. 명장이 걸어도 34년 세월이 거친 손안에 담겨 있다.

자동차 정비 수리사 최용식 대표 인터뷰

성명을 걸고도 온 힘 다해 자동차를 정비할 뿐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한 것 조립하고 수리한 성명을 찾아주는 거죠. 그때의 엔진소리는 제 심장 소리 같아요.

대한민국명장 최용식 대표 인터뷰

영어책을 번역하듯 이빨을 익히고, 더 나은 정비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고민합니다.

파는 기술 고재만 5년 한, 자동차 기술이 빠르게 변해도 정비 분야 최고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최용식 명장은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셀밸런스기를 발명했다.

“수리비를 줄이고, 폐배터리 감소로 환경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구, 짧은 장비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은 최용식 명장.

어렵고 숙제를 두 배 더 많은 도전한 주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월간 HRDKOREA에서 대한민국 명장들의 이야기를 돌아보세요!


월간 HRDKOREA에서 대한민국 명장들의 이야기를 돌아보세요!




글로벌 인재포럼(2023)




2023년 12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윤수린, 김철희, 김재은, 이한별, 유지인, 최다희, 한종택, 황규희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글로벌 인재포럼(2023)**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AI의 등장, 초융합현상(빅블러)의 지구적 확산 및 트렌드를 조망
- 융합과 창의 인재 육성 방안 모색
- 디지털 시대 인재양성 방안, 청년 진로와 취업방향 및 AI 시대의 인문학적 소양의 해외 사례


 **주요목차**


- 글로벌 인재포럼(2023) 개요
- 글로벌 인재포럼(2023) 추진 현황
- 글로벌 인재포럼(2023)

- 글로벌 인재포럼(2023) 만족도 및 향후 개선 방안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지표 연구(2023)

2023년 12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박화춘, 한상근, 황승록, 권율수, 박천수, 장현진, 최지희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지표 연구(2023)**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국내외의 직업조사 및 서비스 현황
- 기초 직업지표로서 입직요건, 소득, 직무특성, 직업가치, 직무능력, 근무여건, 고용안정, 일자리 전망을 분석
- 대상 맞춤형 직업지표 및 이슈 분석
- 분석 결과에 따른 대상별 맞춤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주요목차**


- 국내외 직업지표 조사 및 서비스 현황
- 기초 직업지표 분석
-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대상별 직업지표 분석


20

HRD TRENDS & ISSUES MAGAZINE · 2024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

2023년 11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정재호, 안우진, 박상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치 배경
- 지역인자위 관련 주요 정책 방안, 각종 규정의 변천
- 거버넌스 운영, 지역노동시장 정보 제공, 인력양성 및 일자리 사업 등 주요 활동
- 지역주도 인재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인자위 발전방향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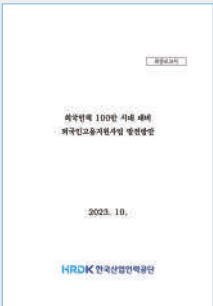
 **주요목차**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추진 경과
- 거버넌스 운영

- 지역노동시장 정보 생성 및 제공
- 인력양성 사업 및 일자리 사업 추진


2023년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 사업 연구

2023년 12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김지영, 김미란, 민숙원, 윤종혁, 함자영, 이상훈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능력중심 채용 지원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연구** 2023년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 사업 연구



 **주요내용**

- 2007년 이후 계속 사업으로 수행 중인 OECD의 PIAAC(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프로젝트 관련 ‘23년도 수행 연구개발과제로 PIAAC 조사 결과의 활용방안 모색
-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하는 업무 환경, 일의 속성, 숙련 요건과 이에 대응하여 달라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프트스킬에 관해 파악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소프트스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

 **주요목차**

- 소프트스킬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기업의 소프트스킬 교육·훈련 현황 분석

- 재직자 소프트스킬 인식 및 교육·훈련 경험 분석
- 기업의 소프트스킬 교육·훈련 사례 분석

21



신규기관: 2.16~3.7. 경력기관 :27~6.17.

2024년 직업훈련 미래혁신 컨설팅 정규사업 공고

2.21. 제4기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

2.27. 청년 구직자 일학습병행 신설 및 현장간담회

3.4.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개시

3.11~4.11.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후보자 신청·추천 접수



3.8. 지역·산업 인적자원개발 심의위원회

3.27. 컨소시엄-일학습병행 심의위원회 개최

3.29. '글로벌숙련부문 HRDK미래지식포럼' 개최

3.28. 일 학 습 병 행 선 이 수 인 정 제 도 운영개선(안) 설명회 개최

3.13~4.9. 능력개발클리닉 참여기업 모집 공고



2.26.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

2.29. 2024년도입학식

3.6. 유길상 총님과 함께하는 한기대 TALK! TALK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2.16.~3.7 2024년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 신규기관 신청·접수

2.28.~3.7. 2024년 제2차 원격훈련과정 심사 신청·접수

3.4.~3.11. 2024년 제4차 훈련이수자평가 신청·접수

3.4.~3.15. 2024년 운영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프로젝트 훈련 접수

3.15. 2023년 상반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선정과정 성과평가 결과 공고



2.5. 제26주년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창립기념일 행사

2.7. 2023학년도 한국폴리텍대학 학위수여(수료)식

연중 직업훈련과정(신·중년특화과정, 여성재취업과정) 모집

3~4월. 다문화 청년 특화교육 모집

3.15.~3.29. 2024년 사무직원 공개채용 공고



3.13. 고용패널조사 자료 온라인 설명회 개최

3.13~3.28. 2024년도 1차 직원 채용 공고

3.15. 2커리어info 3월호(34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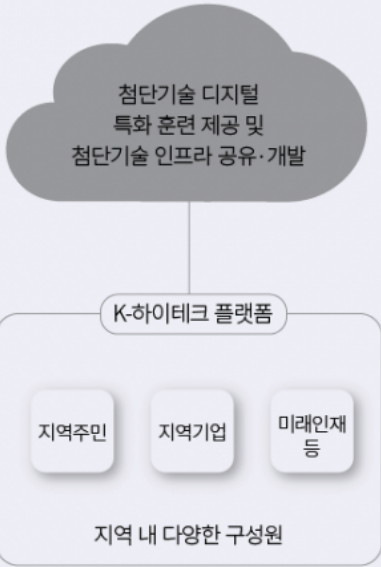
3.15~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공동주관

3월 예정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배지 서비스 오픈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K- 하이테크 플랫폼

첨단기술 및 디지털 전환 등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화훈련을 제공하고, 아이디어 공유 · 문제해결 중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개방된 플랫폼



I 서울

SKT, 엘리스, 알파코
멀티캠퍼스, 모두의 연구소
성균관대+솔데스크
이대서울병원

I 충북

청주대학교+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I 광주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I 울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I 경남

삼성중공업
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
+경상국립대학교

I 충남

백석대학교
세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 인천

CJ올리브네트웍스

I 강원

강원대학교

I 대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경북대학교

I 부산

엘리스
부산대학교
그린컴퓨터아카데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I 경기

LS, 구름, 고양산업진흥원
한국공학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성균관대+솔데스크
LG이노텍, 삼성전자,
한국과학기술원

I 전남

순천대학교
스마트인재개발원

I 대전

모두의연구소

I 경북

포스코
안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I 전북

전주문화방송

I 제주

구름

우리기업 채용비법, 공정채용 컨설팅을 소개합니다.



채용의 전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공개된 내용대로 채용과정을 운영하며,
직무와 무관한 편견요소가 아닌
능력 중심으로 평가해
구직자와 기업이 모두 공감하는 인재채용



공정채용 컨설팅은 기업 맞춤형 채용 전문 컨설팅입니다.

-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 컨설팅 기간 : 컨설팅 시작일로부터 90~150일(3~5개월)
- ▣ 주요 컨설팅 내용

맞춤형 채용제도 설계

- 1) 기존 채용제도 진단
- 2) 채용전형 및 계획 설계
- 3) 고용브랜딩

맞춤형 채용도구 개발

- 1) 직무분석 및 직무설명자료 개발
- 2) 서류 및 면접전형 도구 개발
- 3) 담당자 대상 채용 수행 교육

사후관리

- 1) 온보딩 지원
- 2) 타사업 연계 지원
- 3) 우수사례 발굴



- STEP 1. 홈페이지 접속(www.ncs.go.kr)
STEP 2. 상단 '공정채용' 메뉴 클릭
STEP 3. 공정채용 컨설팅-사업소개 및 참여신청

- 혜택 하나.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제외
(컨설팅 참여 익년부터 3년간)
혜택 둘. 채용 전문 플랫폼 활용 지원
혜택 셋. 컨설팅 참여 확인서 발급

